

장묘 문화 변화...강진선 화장장 유치 운동

(葬墓)

강진군 이장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화장장 유치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군은 강진군화장장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식 군이장단장)가 최근 화장장설치 건의서를 접수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군 의회에 보고하고, 이달 초 군수와 의원, 화장장유치추진위원 등이 모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군은 화장장 유치가 최종 결정되면 각 지역으로부터 공개신청을 받아 최종적격을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다수가 화장장

이장단, 주민 20% 서명 받아 유치 건의서 접수

郡, 이달 중 설치 여부 결정 간담회 개최키로

유치를 희망함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화장장 설치를 추진중인 고흥지역의 사례를 분석하는 등 유기계획서 작성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장들이 직접 나서 대표적 납비사업의 하나인 화장장 조성에 뛰어들 것인 화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강진지역의 화장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강진지역 화장비율은 20.4%로 매년 2~3%씩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주로 목포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지역에는 목포시와 순천, 광양, 여수 등 시지역 4개 지자체에만 화장장이 설치돼 있다.

올해 초부터 마을별 서명작업을 벌인 이장단은 전체 인구 4만여명의 20%에 가까운 7천516명의 서명을

받아냈으며, 이장단 대표와 지역인사 등 20여명으로 유치추진위원회도 구성됐다.

김정식 군 이장단장은 "많은 산과 농경지가 모지로 훼손되면서 국민들의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2010년도에는 화장율이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화장을 하기위해 목포나 광주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화장장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민선 4기 2년 결산

■이 청 장성군수

2천억 규모 기업 투자유치 이끌어내

민선4기 2년동안 장성군은 군수가 바뀌는 우여곡절속에서도 '돈 버는 부자농촌 건설'이라는 당초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자농촌 건설의 핵심은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 등 투자유치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지난 2년동안 장성군이 유치한 투자 규모는 2천억원에 육박한다. 유두석 전 군수가 1천300억원을 유치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재선기를 통해 당선된 이 청군수도 6개월만에 600억원이 넘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5년간 매년 100억원의 기반시설 사업비가 지원되는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오른 것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반시설사업 등 4개 분야별 19개 세부사업을 확정함으로써 장성군의 미래 지도를 바꿀 기틀을 마련했다.

군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국민인대아파트를 100% 분양한데 이어 456세대 규모의 제 2차 국민인대



'돈 버는 부자농촌 건설' 순창 국민인대아파트 100% 분양

민원콜센터 등 열린군정 실현

아파트 건설도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현재 편입 토지를 매입중이다.

이군수는 특히 중앙정부와의 탄탄한 인맥을 바탕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주요 부처 장관들을 만나 지역현안인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활동을 하는 등 세일즈 군수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지난 2월에는 '2020 장성발전 비전계획'을 확정하고 첨단산업 육성, 웰빙 복합농업 육성, 관광개발 및 진흥 등 6개 부문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열린군정 실현도 성과로 꼽히고 있다. 전국 유일의 여성군수인 이군수는 민원실을 제 2의 군수실로 삼을만큼 수시로 민원인을 만나고 전화 한통화로 모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마련에 군정의 최우선 목표를 둘 방침이다. 진원 과 남면에 조성되는 나노기술산업 단지과 황룡·덕성 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물론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청군수는 "신성장동력 마련과 함께 혁신농정으로 농업발전을 꾀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나서 군민들의 소득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행안부 '민원행정 평가' 광산구 국무총리상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됐던 광산구가 지난 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국무총리상을 전수받았다. (사진)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230개 시·군·구 민원행정을 종합평가한 결과 광산구를 최우수구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6천만원을 지급했다.

광산구는 민선 4기를 맞아 민원인 편의 향상 및 적극적 권익 옹호 원칙을 천명하고 '윈스톱 통합민원창구', '민원 후견인제', '광산구청 언제라도 민원지원센터' 등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발굴, 추진해왔다.

특히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을 '민원 후견인'으로

임명해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등 민원인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왔다

또 맞벌이 가정 증가, 주5일제 근무제 등 변화된 생활상에 맞는 행정 구현을 위해 삼성플러스하남점에 연중무휴로 자정까지 운영되는 '광산구청 언제라도 민원지원센터'를 개소, 주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광산구청 민원봉사팀 강효라 담당(54·행정 6급)이 대통령상, 강응화(32·행정 7급)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전남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5일 연장키로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행사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박람회를 당초 6일부터 5일 연장,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간 개최한다.

기술원은 준비과정에 비해 행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농업인들의 여론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농업박람회는 미래 농업 발전

방향 제시와 친환경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 기술관 등 15개 관과 판매장터 2개소, 15종의 체험마당, 9종의 공연마당, 전통문화 발표회 등으로 내실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해외 바이어와 수출약정은 물론 국내 바이어와 농산물 구매약정을 통해 215억원의 소득창출과 현장 농산물 판매로 8억원 등 223억원의 실질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동기자 song@

농협 곡성군지부 '2008년 총회상' 수상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지부장 이원호)가 '2008년 총회상'을 수상했다. 농협 곡성군지부는 지난 1일 농협 창립 제 47주년 및 통합 8주년 기념식에서 타 시군지부의 모범이 되는 사무소에 수여하는 상인 '총회상'을 수상했다. (사진)



곡성군지부는 친절봉사와 나눔경영 등 15개 부문에 걸쳐 농협중앙회의 종합심사와 농업인 조합원과 고객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장흥댐 이설도로 5년째 '無籍' 방치

유치 녹음~용문리 2.7km

관리주체 없어 사고 위험

장흥군 유치면 녹음리에서 용문리를 잇는 2.7km (2차선) 구간의 장흥댐 이설도로가 지난 2004년 4월 개통됐으나 현재까지 도로명칭(국도, 지방도)이 없이 5년째 무적(無籍) 도로로 방치돼 있다.

수자원공사측에 따르면 장흥댐 측조공사는 수자원공사다. 이설도로는 익산국토관리청이 각각 맡아 시행했으나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난 1월에야 댐 준공 인가 가나는 바람에 도로 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공영개시)가 늦어지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2005년부터 익산 국토관리청측에 전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등록해줄 것을 건의해 왔으나 군과 군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라



장흥댐 이설도로가 개통 4년이 넘도록 무적(無籍)도로로 방치돼 보수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유로 지방도 등록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도로는 선형 굴곡이 심한데다 겨울철 혹한기에는 도로 곳곳이 결빙돼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또 급경사로 인한 축대붕괴 발생이 잦아 도로와 접한 산 소유자들의 민

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리 기관이 없어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도로는 국도 23호선과 지방도 820호선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장흥에서 광주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장수벨트協 '대한민국 100살 잔치' 연다

담양·곡성·구례군과 전북 순창군이 만든 '장수벨트행정협회의'가 4개 군을 순회하며 매년 한차례씩 '대한민국 100살 잔치'를 개최한다. 장수벨트행정협회의는 지난달 30일 순창군에서 조형대 곡성군수와 서기동 구례군수, 주영찬 담양부군수, 강인형 순창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100살 잔치 공동개최에 합의했다. 협의회는 제 1회 행사를 순창군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개최시기는 순창군 장류축제기간인 10월께로 정했다.

100살 잔치는 4개 군 장수부부 회흔례와 전국 장수축 경연, "백세인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로 열리게 된다. 또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등 세계 장수지역 전문 석학들을 초청해 국제 학술대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달 일본 오키나와현을 방문, 세계 장수촌간 학술 및 문화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100살 잔치에 대한 자문은 서울대 박상철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과 전경수 인위학교 교수가 맡는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더우시죠? 지치고 피로하시죠?

무더위와 자외선이 강해질수록 항산화제 보강, **아로나민씨클러스**

특히 여름철엔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강한 자외선으로 활성산소(유해산소)가 증가하여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비타민E군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C, 셀레늄, 아연 등 항산화제를 보강한 아로나민씨클러스는 발한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과 활력을 높여줍니다.

항산화제 보강-종합비타민 아로나민씨클러스

- 항산화제: 비타민C, E, 셀레늄, 아연 등 영양학적 보강
- 피로, 눈의 피로, 기력·주근깨

항생비타민 피로회복제-아로나민 골드

- 효능이 탁월한 항생비타민 B(8, B6, B12)와 비타민D, E
- 피로, 신경통, 건통증, 병후·병후 회복력강화

문의: 02-22-1111-1111 | www.aronamin.com

건강이 재산입니다!

11월 27일~12월 10일까지 전국 약국에서 구입하세요

셀레늄, 아연 보강, 비타민E 1200mg (25% 과다)